

舊韓末 『共立新報』・『新韓民報』에 관한 一考察

崔 起 榮

- | | |
|------------------------|-----------------------|
| I. 머리말 | IV. 『共立新報』・『新韓民報』의 內容 |
| II. 『共立新報』・『新韓民報』의 刊行 | V. 『共立新報』・『新韓民報』와 舊韓國 |
| III. 『共立新報』・『新韓民報』의 運營 | VI. 맺는말 |

I. 머리말

舊韓末에 국민의 해외 이주가 급증하면서, 僑胞新聞도 출현하였다. 1904년 3월에 하와이에서 『신조신문』이 창간되었는데, 이는 최초의 교포신문이었다. 한국과 인접하여 일찍부터 이주가 이루어졌고 그 수도 월등 많던 間島나 沿海州 지역에서 보다, 1902년 12월에 勞動移民으로 비롯된 하와이의 교포사회에서 먼저 신문이 발간되었던 것이다. 아마도 그것은 美洲 지역에서 선진된 문화를 수용할 수 있었고, 단기간에 다수의 이민이 집중되었기 때문이 아닌가 싶다.

해외 이주자들은 주로 경제적인 이유에 의한 경우였지만, 日本에 의한 국권의 침탈이 본격화되자 정치적인 이주자들도 증가하였다. 그러한 배경에서 1900년대 후반기에 이르면 美洲 뿐 아니라 沿海州에서도 여러 신문이 간행되었다. 모두 國文으로 발행되었고, 活版도 있었지만 謄寫版이나 石版의 경우도 적지 않았다. 그리고 이들 교포신문은 국내에도 유입되어 輿論의 형성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 事前檢閱을 받던 대부분의 국내신문들과는 달리, 교포신문은 日本의 압력에서 벗어나 있었기 때문이다.

『共立新報』는 1905년 11월부터 1909년 1월까지, 『共立新報』를 改題한 『新韓民報』는 1909년 2월부터 美國 本土인 샌프란시스코에서 발간된 舊

韓末의 대표적인 교포신문이었다. 그리고 『共立新報』는 共立協會의, 『新韓民報』는 國民會 北美地方總會의 기관지였다. 따라서 이 교포신문에 대한 관심은 美洲의 韓人團體에 대한 이해와도 무관하지 않다. 本稿는 그러한 점에 着目하였다. 다만 韓日合併으로 국내와의 연계가 불가능해지기 이전, 즉 이 신문이 국내에도 유입되어 영향을 미친 바 있던 舊韓末에 국한시켜 다루고자 한다. 이같은 작업은 舊韓末의 美洲 교포사회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가능하게 할 뿐 아니라, 국외에서의 國權恢復運動의一端도 살필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¹⁾ 此正을 바란다.

II. 『共立新報』·『新韓民報』의 刊行

『共立新報』는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1905년 11월 22일자로 창간되었는데,²⁾ 그것은 共立協會의 기관지였다. 『共立新報』를 발간한 共立協會는 1905년 4월 5일에 결성된 韓國僑民團體였다. 이보다 먼저 소수의 교포

- 1) 本稿에서 인용한 『共立新報』·『新韓民報』는 活版으로 간행된 1907년 4월 26일자(제2권 제1호)부터 1961년 10월 28일자(제2750호)까지를 6冊으로 1981년에 亞細亞文化社에서 간행한 영인본이다. 원본은 國立中央圖書館에 소장되어 있는데, 1961년에 샌프란시스코 거주 양주은씨가 기증한 것이다. 崔鳳濶, 『미국 속의 한국인』(종로서적, 1983), p. 258 참조. 영인본에는缺號가 매우 많으나, 1909년 말까지는缺號가 없다. 영인본에 빠져 있는 부분은 韓國精神文化研究院 소장의 마이크로필름으로 보충되었다. 『新韓民報』는 현재에도 로스엔젤레스에서 발간되고 있는데, 반정부적인 논조로 이름이 높다고 한다.

舊韓末의 이들 신문에 대한 기존연구로는 李海暢, 『海外國文紙의 變遷』, 『新東亞』 1970년 10월호; 『韓國新聞史研究』(成文閣, 1971)이 있다. 그밖에 崔竣, 「僑胞新聞과 日本의 侵略政策」, 中央大『法政論叢』 15, 1962; 『韓國新聞史論攷』(一潮閣, 1976)이 참고된다.

- 2) 『共立新報』의 창간호는 4면으로 발행되었는데, 그 제1면은 同報 1908년 11월 25일자의 논설 「本報創刊第三回紀念日」 가운데 사진으로 실려 있다. 또 李海暢, 전계논문, p. 154와 마이크로 필름에도 같은 사진이 수록되었다. 그런데 題號 아래에 「光武九年 十一月 二十日 創刊」이라고 쓰여 있으나, 발간일은 「光武十年 十一月 二十二日」로 되어, 차이를 보인다. 同一紙面에서 이같은 차이가 있게 된 구체적인 이유는 알 수 없으나, 共立新報社에서는 이후 11월 20일을 창간기념일로 삼고 있었다. 本稿에서도 창간은 11월 20일로, 창간호는 11월 22일자로 표시한다.

가 1903년 9월에 桑港親睦會를 창립한 바 있으나, 그 활동의 저조와 교포수의 증가로 새로이 共立協會가 결성되었던 것이다. 즉 캘리포니아 지역에 하와이에서 옮겨온 노동이민자들과 유학생들이 2·300명 거주하게 되자 桑港親睦會를 共立協會로 확대·개편하였던 것으로, 모두 安昌浩(1878~1938)의 주도로 이루어졌다고 알려져 있다.³⁾

共立協會의 설립취지는

……設共立協會호고 團體成立호야 同族相保로 目的을 建호며 忠愛相聯과 學業相勸과 患難相救와 過失相規로 宗旨를 定호고……⁴⁾

라고 한 기록에서 짐작된다. 즉 異國에서 생활하는 同族끼리 서로 돕고 보호하기 위하여 단체를 조직하였던 것이다. 바로在美韓國人의 권익보호가 목적이었다. 그리고 同族(種)相保를 위하여 忠愛相聯·學業相勸·患難相救·過失相規라는 보다 구체적인 실천강령을 내세웠다. 이는 언뜻 鄉約에서 강조한 德業相勸·過失相規·禮俗相交·患難相恤과 흡사하다는 생각을 갖게 한다. 共立協會가 異國에서 결성되었음을 감안한다면, 鄉約의 내용을 중심으로 당시 교포들이 처한 실정을 고려하여 작성한 규정으로 짐작하여도 좋을 것 같다. 특히 忠愛와 學業이 강조된 점에서 그렇다.

共立協會의 활동 역시 그 취지와 관련되었다. 교포의 학업과 취업을 주선하고 그 지도와 교육을 담당하였고, 국내에서 교포들에게 보낸 편지의 중개소의 역할을 하며, 귀국자를 비롯하여 사망자나 환자의 구호에 힘쓰는 등 교민보호에 진력하였다.⁵⁾領事가 파견되지 않은 현실에서 그러한 소임을

3) 『新韓民報』1914년 2월 5일자 「국민회력소」. 김원용, 『재미한인오십년사』 1959, pp. 87~88. 盧載淵, 『在美韓人史略』; 『독립운동사자료집』 8 (독립운동사사업기금 운영위원회, 1974), pp. 461~462.

4) 『大韓每日申報』1906년 7월 12일자 잡보. 이 기사는 共立協會에서 大韓每日申報社에 보낸 寄函이었다.

5) 註4)와 同. 『共立新報』1906년 11월 22일자 및 12월 21일자 「협회소지」. 共立協會에는 구제부와 학무부가 설치되어 있었고, 회원들은 구제금과 교육금을 납부해야 하였다. 安昌浩는 캘리포니아 지역에 오는 한인노동자들이 무교육자였기 때문에, 그들에 대한 지도와 교육을 위하여 共立協會를 조직하였다고 한 바 있다. 「島山先生豫審訊問記」; 李萬根選, 『島山餘錄』(홍사단출판부, 1983) p. 84.

대행하였던 것이다. 뿐만 아니라 샌프란시스코 패시픽街 Pacific St.의 3층 건물을 회원들의 募金으로 매입하여 共立館이라는 이름의 회관을 1905년 11월 14일에 개관하고 그곳에서 11월 20일자로 『共立新報』를 창간하였던 것이다.⁶⁾

『共立新報』는 교포사회에 있어 애국심의 고양과 계몽, 그리고 본국과 교포사회의 실상을 알려 서로 깨닫게 한다는 것을 취지로 내세우고 있었다.⁷⁾ 共立協會의 지도층도 교포들에게 内外國 정세의 소개와 독립사상의 고취를 위하여 신문을 발행하였다고 밝힌 바 있다.⁸⁾ 즉 교포사회에 대한 啓導와 본국과의 연계를 신문을 통하여 이루고자 한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부차적으로 국내의 독자층도 염두에 두고 있었음은 신문의 국내유입도 계획되었음을 알려준다. 신문의 발간은 바로 共立協會가 내세운 취지를 드러내고 실천하기 위한 방편이었던 것이다.

『共立新報』는 순국문으로 발행되었다. 그것은 당시 미주 교포의 대부분이 勞動移民으로, 별다른 교육을 받지 못한 상태였던 것과 무관하지 않았을 것이다.⁹⁾ 그리고 隔週刊의 石版印刷로 발행되었다. 기사를 毛筆로 써서 사진을 찍어 石版으로 인쇄하였던 것이다.¹⁰⁾ 신문은 300부 정도를 발행하였는데,¹¹⁾ 미주의 교포들에게 배부되고, 일부는 국내에도 송부되었다.¹²⁾

그러나 『共立新報』는 5개월 동안 11호를 발행하고, 天災之變으로 말미암아 난관에 봉착하였다. 즉 1906년 4월 18일 새벽에 있는 샌프란시스코

6) 『재미한인오십년사』, p. 88. 『在美韓人史略』, p. 470.

7) 『共立新報』 1905년 11월 20일자 논설. 이 창간호의 논설은 『新韓民報』 1916년 7월 6일자에도 「본보 데-호 논설」로 再録되어 있다.

8) 註4)와 同.

9) 초기 이민자의 65%가 文盲이었다는 기록도 있다. 『재미한인오십년사』, p. 7.

10) 李海暢, 전계논문, p. 155, p. 158.

11) 『新韓民報』 1946년 8월 15일자 「신한민보의 창간 四十주년 만 二천호 기념을 축하함」. 이 축사는 共立新報社의 主筆과, 新韓民報社의 사장과 主筆을 역임한 崔正益이 쓴 것으로, 초기의 신문을 회고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12) 『大韓每日申報』 1905년 12월 22일자 잡보 「讀共立新報有感」. 『皇城新聞』 1906년 2월 15일자 잡보 「賀共立新報」, 同 2월 16일자 논설 「讀共立新報有感」.

코의 大地震은 60명에 가까운 교포들에게 피해를 입혔고, 共立館을全燒시켜 共立新報社의 石版 인쇄시설을 훼손시켰던 것이다. 이같은 와중에서도 신문이 중단되지 않고 등사판으로나마 3개월 동안에 5호가 발행되고 있었다.¹³⁾ 1906년 7월에 이르러서야 미국인 신문사의 시설을 빌어 다시 石版으로『共立新報』가 발간되었는데, 10개월 동안에 15호가 발행되었다.¹⁴⁾

大地震이 있는 지 1년이 되던 1907년 4월 26일자의『共立新報』는 活版으로 간행되었다. 이는 共立協會와 교포들이 지진으로 막대한 피해를 입었으면서도 가장 시급하다고 생각한 것이『共立新報』의 발간이었으며, 특히 活版印刷體制였음을 짐작케 한다.¹⁵⁾ 活版은 교포들의 의견으로 日本에서 구입하였던 것 같다.¹⁶⁾

石版과 등사판으로 발간된『共立新報』는 모두 31호였는데 이를 제1권으로 간주하고, 活版印刷부터는 제2권의 호수를 사용하였다. *The United Korean*이라는 英文題號와 'FOR THE KOREANS AND BY THE KOREANS'의 표어도 기재한 이 신문은 週刊으로 발행할 것을 밝혔다. 또한 사진을 게재하기 시작하여, 국내의 신문보다 오히려 기술적인 선진성을 보여주기도 하였다.

신문이 週刊으로 발행된 것은 1907년 5월 31일자의 제3호부터였는데

- 13) 『帝國新聞』 1906년 5월 21일자 잡보「新聞續刊」, 『新韓民報』 1913년 11월 21일자 논설「祝本報八週年紀念」에 의하면 3호가 발간되었다고 하나, 韓國精神文化研究院 소장의 마이크로 필름에서 확인한 바 5호가 발행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 14) 『新韓民報』 1913년 11월 21일자 논설「祝本報八週年紀念」에는 17호가 발행되었다고 하였는데 마이크로 필름에서는 15호로 확인되었다. 단 1907년 3월 19일자(제30호)가 발간된 이후에 날짜 미상의 등사판 신문이 1차례 발간되고 있었다. 이는 미국인 신문사와의 문제에서 비롯된 일이었다.
- 15) 註4)와 同. 『共立新報』 제27호(1907년 1월초 발간; 마이크로 필름에서 날짜 확인 불가)의「社告」.
- 16) 『共立新報』 1907년 4월 26일자 논설「爲賀本報發刊始刊」. 또 『新韓民報』 1914년 2월 19일자「대한민국민회 북마더방총회 四二四七년도 德의원회의 립안」의 제25조, 현실적으로 거래가 불가능한 재무관제의 문서를 파기하는 내용 가운데「뽕빈복음사」가 포함되어 있다. 초기 신문들의 국문활자는 주로 이곳 橫濱의 福音印刷合資會社에서 주문하였던 것 같다.

매 금요일자로 발간되었다. 그러다가 1908년 1월 8일자의 제64호부터 배부의 편의를 위하여 발행일을 수요일로 바꾸었다.¹⁷⁾ 또 초기에는 4단제의 편집이었으나, 창간 2주년을 맞은 1907년 11월 15일자부터 7단제로 지면이 확장되었다. 신문사도 여러 곳을 전전하다가 1907년 8월 이후 共立協會의 총회관과 합設하였다.¹⁸⁾

이같은 『共立新報』의 발전은 결국 共立協會의 확장과 발전을 보여주는 것이었다. 共立協會는 1908년 말까지 地方會가 美洲에 7개처, 間島와 滿洲·沿海州지역을 포함하는 遠東에 2개처에 이르러, 국내 뿐 아니라 해외 교포사회끼리의 연계를 이루고 있었다.¹⁹⁾ 『共立新報』는 1908년 11월 25일자의 논설 「本報創刊第三回記念日」에서 신문의 발전을

……본보는 자유하는 세계에 독립해야 임의로 출판하며 임의로 언론함으로써 그 진보의 속도나 한달 천리의 형세로 일취월장하여 수년간에 四五千당이 넘기에 발행해야 독립정신과 자유권리를 고취하니 일반 동포마 심이 환영하여……

라고 자부한 것에서도 짐작된다. 약간의 과장은 있겠지만 美洲 뿐 아니라 국내에도 4·5,000 부가 우송되어 크게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다. 日本側에서도 미주에 있어서 共立協會와 『共立新報』를 들어 排日團體와 그 기관지의 대표격으로 이해하고 있었다.²⁰⁾

그런데 1909년 1월 27일자 『共立新報』의 「社告」를 보면

대더 보필이란 거슨 불편불의의 혼 공공기관이라 고로 본보의 명칭을 못처 리월 붓더 「신한민보」 新韓民報라 기칭하깃기로 일차 명간하고 五號 활자를 서로 비

17) 『共立新報』 1908년 1월 8일자 잡보 「발행일기정」.

18) 共立新報社는 活版印刷을 오클랜드市 10번가 416호의 미국인 신문사 2층에서 시작하였으나, 제3호부터는 샌프란시스코 부카난街 1944호에서 발행하였다. 1907년 8월 17일에는 共立協會 총회관과 합設하여 오스틴街 392호로, 1908년 6월 23일에는 새크라멘트街 2928호로 위치를 옮겼다.

19) 『共立新報』 1908년 12월 30일자 「특별광고」 및 同 11월 18일자 별보 「祝賀海參威共立會」·「水清地方會組織詳況」 참조.

20) 『韓國獨立運動史』 1 (國史編纂委員會, 1965), p. 1007. 이는 『駐韓日本公使館記錄』, 「一九〇六~一九〇八年 在留米露韓人關係」에 포함된 문서의 번역이다.

치후 후 二月 十日에 차호를 발간할것스오니 독자 계군은 조랑한시음

共立新聞社 고백

이라 하여, 신문제호의 개칭을 밝히고 있었다. 실제로 1909년 2월 10일 자부터는 『新韓民報』라는 새로운 제호로 신문이 발행되었다. 영문제호도 *The New Korea* 로 바뀌었다. 그러나 신문의 호수는 그대로 연결되었고 신문사 내부의 변동도 없었다. 동일한 장소에서 그 편집진이 같은 체제로 발행을 하였던 것이다.

『共立新報』의 『新韓民報』로의 改題는 미국 본토의 共立協會와 하와이의 韓人合成協會가 합동하여 1909년 2월 1일에 國民會를 결성함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었다. 위대한 조국의 운명과 비참한 민족의 실정을 구원하기 위하여서는 미주의 교포조직이 단일화되어야 한다는 두 단체의 公論과 교포사회의 여론이 國民會의 결성을 촉구하였던 것이다.²¹⁾ 이 합동의 배경에는 海牙密使 李相高의 美洲活動을 비롯하여, 1908년 3월 23일에 있는 張仁煥·田明雲의 스티븐스 暗殺事件과 1908년 7월에 콜로라도州 덴버市에서 개최된 愛國同志代表會의 영향 등이 있었던 것으로 이해된다.²²⁾ 共立協會와 합동한 韓人合成協會는 1907년 9월에 30여개로 난립해 있던 하와이 내의 韓人團體를 단일화한 단체로, 國權恢復의 후원과 在留同胞의 安寧·교육증진을 그 목적으로 내세우고 있었다.²³⁾ 실제 共立協會에서는 캘리포니아 지역에서 주로 활동하던 또다른 한인단체인 大同保國會와의 합동이 자주 논의되었으나,²⁴⁾ 오히려 韓人合成協會와의 합동이 먼저 이루

21) 『共立新報』 1909년 1월 13일자 「合同發起文」.

22) 尹炳奭, 「1910년대 美洲 지역 韓人社會의 動向과 祖國獨立運動」, 『斗溪李丙燾博士九旬紀念韓國史學論叢』(知識産業社, 1987), p. 816. 尹炳奭氏는 1912년 大韓國民會 중앙총회의 조직과 관련하여 그러한 지적을 하고 있는데, 이는 1909년 國民會의 결성시의 상황과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23) 『新韓民報』 1914년 2월 5일자·2월 26일자 「국민회력스」, 『재미한인오십년사』, pp. 95~101. 『在美韓人史略』, pp. 484~485.

24) 『大韓每日申報』 1906년 10월 20일자 잡보, 『共立新報』 1907년 11월 29일자·12월 6일자 기사 「미주 한인사회를 합동하자는 의견서」, 同 12월 13일자 기사 「共立·大同 兩會가 합一할 필要」, 『帝國新聞』도 1908년 1월 7일

어졌던 것이다. 國民會의 조직은 中央總會·地方總會·地方會로 구성되나 중앙총회는 1912년에 가서야 이루어진다. 따라서 北美와 하와이의 지방총회는 기존 共立協會와 韓人合成協會의 조직이 그대로 전환되었고, 상호간섭이 없이 독립적으로 운영되었다.²⁵⁾

國民會는 그 목적을

교육과 실업을 진발하며 자유와 평등을 메창해야 동포의 영예를 증진하며 조국의 독립을 광복케 함에 잇슴²⁶⁾

이라고 그 章程에서 밝힌대로, 교육과 실업의 振發과 자유·평등의 제창으로 國權恢復을 이루겠다는 것이었다. 『新韓民報』는 그 改題 첫날인 1909년 2월 1일자의 사설 「본보의 명칭」에서

아 단군거원 四千二百四十二年 二月 十일에 북미합중국 상항에 지류하는 대한국민의 서로 기간 공포하는 신한민보(新韓民報)는 즉 전일 공립신보가 변환하여 성립한 자라……즉금 공립협회가 국민회(國民會)로 변환하여 회무가 중립하는 동시에 우리 신보도 또한 권자를 넘키여 일보로 전진함을 도모치 아니함이 불가

자에 「미주에 지류하는 동포에게 권고함」이라는 논설을 게재하여 두 단체의 합동을 권고하였다.

大同保國會는 1905년 12월 9일에 로스엔젤레스의 동북방에 있는 파사디나 Pasadena에서 창립된 大同教育會를 1907년 3월 2일에 개편한 단체로, 1907년 10월 3일자로 『大同公報』라는 기관지를 週刊으로 창간하여 1909년 1월 23일자까지 발행한 바 있었다. 張景이 지도자였는데, 共立協會의 창립 초기에 安昌浩와 대립한 세력이 중심을 이루었던 것 같다. 東洋平和와 한국의 安保를 2大主義로, 인민의 교육확장·인민의 실업흥기·인민의 자치창설을 3大綱領으로 내세우고 있었으며, 스티븐스 暗殺事件과 같은 문제는 共立協會와 공동보조를 취하기도 하였다. 『韓國獨立運動史』 1, pp. 572~573에는 共立協會를 自由民主主義를 제창한 小肚派 중심의 단체로, 大同保國會는 王朝復古를 신조로 하는 保守老肚派로 이해하고 있다. 該 구성원의 지역적인 차이도 있었으리라 짐작된다. 大同保國會는 國民會에 1910년 2월에 통합되는 데, 이때 國民會는 大韓人國民會로 개칭되었다. 『新韓民報』 1914년 2월 5일자·2월 26일자 「국민회력사」, 『재미한인오십년사』, pp. 89~90, p. 106, pp. 263~264. 『在美韓人史略』, p. 475, p. 486, p. 493. 『大韓每日申報』 1907년 7월 17일자 잡보 「北美大韓人大同保國會趣旨書」.

25) 『新韓民報』 1909년 3월 24일자 「국민회장명」.

26) 註25)와 同. 제 2조.

하니 이럼으로 오날 이후로는 본보가 완전한 자격을 갖추고 독립 디위를 보전하야 언론을 일층 활발케 하기를 주당하는지라 신한민보라 하는 명칭이 이에 잇서며 이에 잇다 하노니 공립신보와 신한민보는 그 목격도 하나이오 그 처소도 하나이오 그 조직도 하나이오 그 배치도 하나이로되 그 갓지 아니함은 더는 소소할 단배에 한하여서되 이는 광덕할 아국민 전배에 밋참이오 더는 소년 아동시기에 잇서더니 이는 로성할 더당부의 처디를 취함이오 더는 부속기관을 사용함을 응하엿스되 이는 기관을 사용하는 주인의 자리를 누린다 하노라 신한민보는 글자 뜻과 갓치 우리 대한을 서롭게 하는 우리 국민의 신보라……

고 하여, 『新韓民報』가 『共立新報』와 그 목적・장소・조직・체제가 다르지 않으나, 오직 한 단체의 기관지에 그치지 않고, 한국인 전체를 새롭게 하고 대표할 수 있는 신문이 되고자 題號를 바꾸었다고 밝혔다. 韓人合成協會의 기관지인 週刊의 『합성신보』가 『新韓國報』로 改題된 것도 같은 뜻이었다.

『新韓民報』는 1909년 4월 28일자의 논설 「告閱有志諸君」에서

……신한(新韓) 두 글자는 쇠망한 한국을 새롭게 할 목적을 표명하얏고 민보(民報) 두 글자는 부패한 민지를 소성케 하며 일허버린 민권을 회복케 하는 二十世紀 신세계의 국민주의를 메창하는 보필이라……

고 하여 한국을 새롭게 하고 民權의 회복인 國民主義를 지향한다고 신문의 題號를 다시금 설명하였다.

『新韓民報』가 단체의 기관지가 아닌 국민을 대표하는 신문임을 내세웠으나, 國民會 북미지방총회의 기관지였음은 再論의 여지가 없다. 『共立新報』가 「會報」난에 共立協會와 관련된 기사를 실었듯이, 『新韓民報』도 「國民會報」난에 國民會의 관련 기사를 실고 있었다. 바로 共立協會가 國民會 북미지방총회로 전환된 것 뿐이었다. 1910년 5월에는 『新韓民報』에 英文欄도 설치하여 지면의 다양화를 시도하였으나, 경비의 과다로 곧 폐지하였다.²⁷⁾ 혹 일부 미국인을 독자층으로 확보하기 위한 조치였는지 모르겠다.

27) 『在美韓人史略』, p. 491.

國民會 북미지방총회는 『新韓民報』를 발간하면서 멕시코 유카탄 Yucatan 과 遠東地方에 거주하는 동포들과의 연계도 시도하였다. 1909년 4월에 黃思溶과 邦化重을 멕시코로, 李相高과 鄭在寬을 遠東으로 파견한 것도 그러한 이유에서였다.²⁸⁾ 그같은 관심은 1909년 11월 현재 북미지방총회에 미주와 俄領의 각 5개처, 만주와 멕시코의 각 1개처에 이르는 지방회가 소속될 수 있었던 것이다.²⁹⁾ 『新韓民報』가 國民會의 창립 5주년을 맞아 내린 평가에서

……그 조직의 규모는 순전히 헌법을 의방하여 더의정비를 채용하며 연방제도와 7차 미주·하와이에 지방총회를 설립하여 각각 주의를 허락하고 그 기관보의 명칭을 변경하여 공립신보는 신한민보라 칭하며 합성신보는 신한국보로 지명하고 각 지방총회의 원기가 전전하기를 기다려 중앙총회 조직을 준비하니 이로부터 국민회는 해외한인의 무형의 정부가 되어 각처 지류민을 보호 지휘한다……³⁰⁾

고 지적한 것처럼 國民會가 海外韓國人의 정부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역할에 그 기관지인 『新韓民報』가 맡은 기능 역시 쉽게 짐작된다.

Ⅲ. 『共立新報』·『新韓民報』의 運營

『共立新報』가 共立協會의 기관지였던 만큼, 그 관여자들 역시 共立協會의 임원이나 주도적인 회원이었을 것이다. 『新韓民報』는 『共立新報』를 改題하였을 뿐이므로 그 관여자가 『共立新報』와 다르지 않게 연결되고 있었다.

1905년 11월에 『共立新報』를 창간한 것은 共立協會의 제 1대 총회장인

28) 『新韓民報』 1909년 4월 7일자 논설 「送黃思溶·邦化重兩委員之墨西哥」 및 잡보 「량위원발령」. 同 4월 28일자 잡보 「량씨발령」 및 同 6월 2일자 「國民會報」.

29) 『新韓民報』 1909년 11월 17일자 「특별광고」.

30) 『新韓民報』 1914년 2월 26일자 「국민회력스」.

安昌浩였으나, 신문 발간의 책임자인 主筆은 共立協會의 제 2대 총회장으로 활동한 宋錫峻(1865~1907)이었다. 그는 신문이 活版으로 간행되기 이전인 1907년 4월까지 관여하였던 것 같다.³¹⁾ 그러나 실제로 그는 총회장의 사무가 많아 1906년 6월부터 邦化重이 主筆을 대리하였다. 共立協會의 代議員이던 邦化重(?~1939)은 毛筆로 기사를 써서 石版으로 인쇄할 수 있게 하였다.³²⁾ 1907년 4월 26일자로 活版印刷가 이루어지자, 共立協會의 부회장인 鄭在寬(1880~1920)이 주필이 되고, 李剛(李正來; 1878~1964)도 신문에 관여한 듯하다.³³⁾ 그러나 초기의 신문제작자들 가운데에는 신문제작에 경험이 있거나 재능이 있는 인물이 없었다. 특히 活版으로 신문을 간행하면서 우수한 기자의 필요성이 증대되었으나, 뚜렷한 책임자가 없었던 것 같다.³⁴⁾

신문사의 조직에 대해서는 그 규정을 찾을 수 있다. 1908년 초의 규정 에 따르면 共立新報社는 共立協會의 총회장이 겸임하는 사장을 비롯, 봉급이 지급되는 편집·회계·주공(鑄工?) 각 1인과 인쇄 2인으로 구성되어 있었다.³⁵⁾ 그중 인쇄 1인의 월급이 20元으로 다른 임원의 10元보다 높았던 것은 인쇄시설의 미비나 그 직임의 중요성과도 무관하지 않았을 것 같다. 그러나 실제 신문사의 구성은 규정과 약간 차이가 있었다. 1908년 말 共立協會 총회의 임원회에서 결정된 신문사의 구성은, 발행겸편집 崔正益·총무원 許昇元·회계원 金永一·인쇄원 田成德·金宗林이었다.³⁶⁾

31) 『新韓民報』 1946년 8월 15일자 「본보략사」.

32) 註 31) 및 『共立新報』 1906년 6월 18일자 「主筆代理」. 李海暢, 전계논문, p. 155, p. 158.

33) 註11)과 同.

34) 『大韓每日申報』 1906년 7월 28일자 잡보 「共立協會來函」에 '但此地別無新聞記者之才能 以是爲悶耳'라고 하였고, 『共立新報』 1907년 12월 6일자에 실린 安定洙의 기사 「미류 한인사회를 합동한자는 의견서」에도 경험있는 신문기자의 초빙을 제의하고 있었다.

35) 『共立新報』 1908년 3월 18일자 「會報」.

36) 『共立新報』 1908년 12월 30일자 「會報」. 그중 崔正益은 1908년 3월 22일에 스티븐스에게 항의한 한국인 대표 가운데 1인인 崔有涉의 본명이다. 『共立新報』 1908년 4월 22일자 광고.

共立新報社・新韓民報社の關係者

〈表 1〉

직임	성명	출신지	재임기간	공립협회 임원직	국민회 북미지방 임원직	비고
主筆	宋錫煥	關西	1905. 11 ~ 1907. 4	총회장		1907 사망 1906. 6 ~ 1907. 4 에는 邦化重이 주필대리
	鄭在寬	황해 황주	1907. 4 ~ 1909. 1	총회장	총회장, 遼東委員	공립신보사장 겸무
	崔正益 (崔有涉)		1909. 1 ~ 1909. 7 1910. 2 ~ 1910. 5	상항지방회장, 총 회 부회장	총회장대리・부회장	신한민보사장 겸무
	姜永大		1910. ~ 1911. 2	나성지방회 부회장	총회대의원	1909 私塾 런던 거주
	李恒愚	강원 철원	1911. 2 ~ 1911. 8		1912 중앙총회 부회장	애국동지대표회・네브라스카 大
	朴容萬	서울	1911. 11 ~ 1912. 6		상항지방회총무	하와이합성신보・신한국보주필
	洪 焉	전라도	1912. 6 ~ 1913. 6	상항지방회장대리	상항지방회총무	1913 興土團
	鄭源道		1913. 6 ~	상항지방회장	상항지방회장・총회 장	1909 가주대학, 목사
총무원	許昇元	평북 용천	1908. 12 현재	상항지방회장	상항지방회장・총회 총무	

회계	林 嶺正 金永一 朱 元	평남 용강 합남 함흥	~1907. 9 1907. 9~1909. 9 1909. 9 현재	총회대의원 상항지방회 부회장	총회대의원	1907 귀국, 대한매일신보사
인쇄원	李交峽 田成德 金宗林	평남 평양 함경도	1907. 4~1907. 10 1907. 10~1909. 6 1908. 12 현재	총회대의원 상항지방회 학무원 상항지방회 법무원	상항지방회 학무원	1907 귀국, 대한매일신보사 1913 興土團
사원	邦化重 李 剛 (李正來) 吳大泳 梁柱三	평남 평양 평남 용강 평남 삼화 평남 용강	1905. 11~? 1907. 9~ 1907. 11 현재	나성지방회장 遼東委員 총회대의원・충무・ 서기 프레스노지방회 경 찰원	총회대의원 총회대의원	1909 중학 2년 정학, 전도사 1909 평양 大成學校 수학 목사, 上海中西學院・맨더필트 大・예일大
활판	김영수 리형터	평남 용강	1909. 6 현재 1909. 9 현재			

규정에 없던 총무가 있고, 주공은 없었다. 대략 5·6인으로 신문사가 구성되지 않았을까 한다. 신문에 게재된 국내기사는 국내신문에서 발췌하고 미국이나 기타 국제관계의 기사는 미국에서 발행된 신문을 참고하였을 것이다. 미국에서 발행된 中國人·日本人의 교포신문도 참고하였다. 그리고 미주교포에 관한 기사는 共立協會의 지방회를 통하여 확보하였을 것으로 짐작된다. 이는 『新韓民報』의 경우에도 다르지 않았을 것이다.

신문사의 사장직은 초창기에는 없다가 1907년 중에 설치된 것 같다. 共立協會와 國民會 북미지방총회의 총회장이 겸직하였다. 1910년대에는 사장직이 없어진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사장은 명목이었고, 신문은 주필의 책임하에서 발간되었다. 鄭在寬과 崔正益은 사장을 겸임한 주필이었는데, 그것은 그들이 단체의 총회장이었기 때문이다.

『共立新報』와 『新韓民報』의 주필에 대해서는 『新韓民報』 1913년 11월 21일자의 논설 「祝本報八週年記念」에 그 명단과 재임기간이 소개되어 있어 크게 참고된다. 表 1은 신문사의 주필과 신문에서 찾아지는 신문사의 관여자들을 정리한 것이다.

表 1을 통하여 신문사의 관여자들은 대체로 共立協會와 國民會의 주도적인 인물이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주필의 경우 영국 런던에 거주하다 1910년 중에 잠시 주필을 맡은 李恒愚를 제외하면 모두 지방회나 총회의 지도자였다. 특히 宋錫峻과 鄭在寬, 崔正益과 같은 초기의 주필은 주필직에 있으며 단체의 총회장에 선임되었다. 이는 1910년에 이르기까지 주필의 지위와 영향력을 가늠할 수 있게 한다. 그리고 1910년대에는 주필직이 보다 전문화한 것이 아니었나 생각된다.

신문의 내용으로 보아 그 관여자들은 국내에서 전통적인 교육을 어느 정도 받고, 신학문에도 관심을 가졌던 인물로 짐작된다. 1910년대 이후에 주필을 맡는 朴容萬(1881~1928)이나 李大爲, 또 사원 중의 梁柱三(1879~?)은 미국에서 대학교육까지 받았지만, 대부분은 미국에서 별다른 교육을 받지 못하였던 것 같다.³⁷⁾ 그러나 이들 가운데 일부는 영어도

해득하였을 것이다. 이들은 단순한 노동이민자라기 보다 정치적·종교적인 배경이나 유학을 목적으로 渡美한 것이 아닌가 한다. 『共立新報』 1908년 9월 16일자에 게재된 寄書「在美韓人の將來」에서 梁柱三은 미주교포를 유학생·노동자와 ‘사회에서 주선하는 인도자’로 구분하였는데, 신문사 관여자들은 대개 세번째 부류에 속하였을 것이다. 또 이들은 개신교 신자가 대부분이었다. 초기 이민자 가운데 개신교 신자가 많아 1908년에는 전체의 70%에 달하였으므로, 그 지도적인 위치에 있던 신문사 관여자들의 대부분도 개신교 신자였다고 생각된다.³⁷⁾ 특히 邦化重·李大爲·梁柱三은 전도사로 활동하였고, 李大爲와 梁柱三은 뒤에 牧師가 되었다.

이들의 출신지역을 모두 알 수는 없지만, 알려진 중에는 평안도 출신이 가장 많고, 대개가 關西·關北地方人들이었다. 共立新報社·新韓民報社의 국내발매소가 關西地方에 집중되었던 것과 이와 무관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들 가운데 전직관리나 양반유생층이 찾아지지 않는 것도 당연하다고 하겠다. 아마도 전직관리나 양반계층으로 미주에 이주한 경우는 몇몇 정치적 망명과 유학을 제외하고는 찾아지지 않을 것 같다. 따라서 신문사의 관여자들은 중·하류층의 개신교 신자로 關西人들이 주를 이루었다고 보여진다. 다만 전통적인 교육과 신학문을 수학하고, 영어도 일부 해득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共立協會나 國民會의 초기 지도층의 경우도 마찬가지였다.

37) 林嶺正의 경우를 보면 1903년 가을 노동을 하기 위해 하와이에 1년 머물다가, 학업을 위해 미국 본토로 갔으나 공부는 불가능하였고, 小學校에 1년 다녔을 뿐이라고 한다. 『韓民族獨立運動史資料集』1(國史編纂委員會, 1987), p. 313 참조.

38) 『共立新報』 1908년 8월 19일자 논설「아편연은 나라를 망하고 몸을 망함」. 同報 1907년 7월 19일자에 게재된「한인련합교회보발간취지서」의 발기인 7인 가운데, 邦化重·梁柱三·李正來·李交俠·林嶺正·吳大泳의 6인이 신문사 관여자였다. 또 의연금 기탁자에는 이들 외에 鄭在寬·田成德도 찾아진다. 宋錫峻도 교인이었다. 정확한 자료는 없지만 나머지 신문사 관여자들도 기독교 신자였으리라 짐작된다.

『共立新報』와 『新韓民報』는 단체의 기관지로 발간되었기 때문에 국내신문의 상당수가 株式會社의 형태였던 것과는 달리 그러한 조직을 갖추지 않고 있었다.

共立協會나 國民會의 재정은 회원들의 회비와 기타의 연금으로 운영되었다. 『共立新報』 1908년 7월 14일자 共立協會 총회의 광고를 보면

총회 금 각 지방회의 일반 경비가 더단 곤란호오니 본회 회원은 구제금·교육금·월연금을 소속한 각 지방회로 —— 청랍하심을 바라옵

이라 한 것이나, 「國民會章程」에 입회비·월연금·의연금·교육금·구제금·별금의 항목이 있는 것으로 그 재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짐작된다.³⁹⁾ 별다른 수익사업을 가지지 못하였으므로, 회원들에게 재정을 의존해야만 하였다.

따라서 그 기관지 역시 독자들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할 수 밖에 없었다. 초기 共立新報社의 재정상태에 대해서는 1905년 11월 20일 창간에서부터 1908년 1월 31일까지의 財政決算書를 참고할 수 있다. 表 2가 그것으로 『共立新報』 1908년 3월 25일자의 「會報」에 게재된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⁴⁰⁾

表 2에 의하면 共立新報社의 수입은 補助金·新聞代金·廣告料·印刷收入으로 이루어졌는데, 광고료와 인쇄수입은 전체의 6%를 上廻할 뿐이었다. 결국 보조금이 51.8%, 신문대금이 41.9%였으므로, 보조금이 10%나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다. 보조금이란 교포들의 義捐金을 말하는데, 그것은 共立新報社가 신문대금보다 교포들의 의연금으로 운영되고 있었음을 알려준다. 그리고 총지출액이 수입을 훨씬 넘어 赤字가 1천원에 달하였던 것이다.

39) 『新韓民報』 1909년 3월 31일자 「國民會章程」.

40) 마이크로 필름을 보면 『新韓民報』 1909년 12월 1일자에 社告로 「본사 창립 이후 각년결산」(1905. 11. 20~1909. 10. 31)이 있어, 이후의 재정상태도 알 수 있으나 大勢에는 별다른 차이가 없다.

〈表 2〉

共立新報社 財政決算書

(1905. 11. 20~1908. 1. 31)

[단위 元・錢]

○收入	
●보조금	1,403.00 (51.8)
●신문대금	1,132.91 (41.9)
●광고요금	156.65 (5.8)
●인쇄물방입금	14.15 (0.5)
합 계	2,706.71(100.0)
○支出	
●신보본지가	120.22 (3.2)
●인쇄비	103.75 (2.7)
●공용급지목비	1,200.93 (32.0)
●신보발송우표비	293.42 (7.8)
●활자명물품비	1,070.55 (28.5)
●가옥세	356.50 (9.5)
●식공비	202.50 (5.4)
●각신문구람비	14.00 (0.4)
●새말에물비	23.75 (0.6)
●사원봉급	371.00 (9.9)
합 계	3,756.62(100.0)
	()는 백분율
○적 자	1,049.91

이같은 현상은 이 시기에 국한되지 않았다. 1910 년대에 이르기까지 마찬가지였다. 1915 년 1 월 28 일자 『新韓民報』의 논설 「북미총회 덕의회의 결안에 덕하야」를 보면

……元一千九百七년으로부터 一千九百十四년까지 연조금과 의무금의 수입을三口로 난호아 비교하건터

— 연조금시덕

一九〇七년 一一七一, 九〇

一九〇八년 一四二六, 五〇

一九〇九年

一五一三, 七三

一九一〇年

一六六二, 一四……

이라고 하여 1907년부터 1910년까지를 捐助金時代로 부르고 있었다. 1911년은 捐助·義務 병행시대로, 1912년 이후를 義務金時代로 구분하였는데 1910년까지의 연조금은 총 5,774元 27錢에 달하였다. 바로 이 연조금이 신문사 收入의 주를 이루었던 것이다. 이는 교포들의 신문에 대한 깊은 관심과 애정을 짐작케 한다.

表 3은 共立協會의 1908년도 경비예산표 가운데 共立新報社의 예산이다.⁴¹⁾ 共立協會의 代議員會에서 결정된 이 예산에 의하면, 1년 예산 3,648元은 봉급 720元(19.7%)·발간비 1,536元(42.1%)·잡비 792元(21.7%)·가옥비 600元(16.5%)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이 예산은 신문 1호당 3,000부의 출간을 예상하고 편성한 것이었다. 신문제작에는 1개월에 304元, 호당 약 70元이 소요되는 것으로 計上되었다. 1년 구독료가 2元이었으므로 총예산 3,648元을 自辦하기 위해서는 1,800부의 有料讀者가 확보되어야만 하였다. 그러나 이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였다. 『共立新報』 1908년 3월 18일자의 논설 「希望布哇在留同胞」를 보면

……지금 본보가 창간한 지 두회가 넘어 너디에 발송하는 수효가 三千여당이고 미주에 구람하는 수효가 五百여당인데 하와이에 발송하는 수가 불과 百여당이라……

고 있듯이 국내에 발송되는 신문이 미국 본토나 하와이에 비해 월등히 많았음을 알 수 있다. 또 1910년 초 日本側의 조사에 의하면 『新韓民報』는 3,000부가 발행되었는데 미국 본토에서 7·800부가 구독되고, 멕시코에 3·400부, 하와이에 5·600부가 발송되었다고 한다. 나머지 1,500부는 한국과 沿海州地方에 발송된 것으로 조사되었다.⁴²⁾ 국내에 다수의 신문이

41) 『共立新報』 1908년 3월 18일자 「會報」.

42) 『韓國獨立運動史』 1, p. 1032. 이는 『駐韓日本公使館記錄』, 「一九〇九年 在外韓人關係」의 번역이다.

〈表 3〉

1908년도 共立新報社預算

제 1 항	봉급	720元
1.	사장 총회장 겸임	
2.	편집	1人 月 10元
3.	인쇄	1人 月 20元
	同	1人 月 10元
4.	회계	1人 月 10元
5.	주공	1人 月 10元
제 2 항	발간비(1週 3,000부 출간예정)	1,536元
1.	본지값	月 40元
2.	인쇄비	月 40元
3.	우체비	月 48元
제 3 항	잡 비	792元
1.	지필묵	月 20元
2.	식당비	月 30元
3.	식슈동화(?)	月 10元
4.	차전비	月 6元
제 4 항	가옥비	600元
	기계배치와 인쇄소병산 月 50元 가량	
	각항합계	3,648元

발송되었으나, 국내에서 구독을 신청한 경우와 미주교포가 대금을 납부하고 국내의 知人을 지정한 경우는 그 수가 많지 않았을 것이다.⁴³⁾ 오히려 1908년 2월까지 신문사에서 국내의 유지와 특정기관에 무료로 신문을 발송한 수가 더 많았으리라 생각된다.⁴⁴⁾ 그리고 상당수는 국내에 위탁된 발매소(支社)에서 판매되었던 것 같다. 이같은 점으로 보아 국내에 보내진 신문의 대금은 회수가 쉽지 않았으리라 짐작된다.

따라서 미국 본토와 하와이에 보내진 신문대금이 신문사의 주된 수입원일 수 밖에 없었다. 1908년 3월에 共立新報社에서 하와이 농장의 동포에

43) 『共立新報』 1908년 1월 29일자 기사「事半功倍」. 同 3월 11일자 잡보「계씨의 열성」.

44) 『共立新報』 1908년 1월 22일자「特告內地愛讀僉君」.

게 신문을 일시 무료로 우송하였던 것은 독자의 증가를 기대한 일이었다.⁴⁵⁾ 그러나 그 신문대금도 잘 납부되지 않고 있었다. 『共立新報』 1908년 12월 2일자 의 논설 「購讀諸君의게 告誡」에

……본지자의 생각은 본사를 위하야 지정정리할 방침이 신문대금을 조수히 밋는 것이 매일이라 현금 본사의 회계문부들 도사호전더 금년 더금 미봉이 하와이에 五百여원이오 미쥬에 三百여원이니 합 八百여원이라 이것만 밋을지라도 당당 용식은 면할 것이오

라고, 각 지역 未收代金の 납부를 독촉한 것도 그같은 재정난 때문이었다.

이러한 실정에서 表 3의 예산을 신문사의 수입으로 채울 수는 없었다. 결국 신문사 자체에서도 부족한 재정은 비정상적인 방법, 즉 교포의 의연금을 염두에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던 것이다. 1909년 9월의 예를 보면, 新韓民報社의 재정은 停刊에 이를만큼 어려웠다. 『新韓民報』가 9월 15일자와 22일자에 그러한 상황을 호소하자, 약 2개월에 걸쳐 교포들이 의연한 액수가 750元을 넘고 있었다.⁴⁶⁾ 당시 대부분의 교포들은 鎭山이나 칠도공사장에서 육체노동으로 수입을 올렸는데, 의연금은 그 일부였다. 그같은 의연금이 1910년까지 6,000元에 달하였던 것은 교포들의 신문에 대한 깊은 관심을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

신문사의 인쇄기도 1907·8년에 교포들의 의연에 의한 것이었고,⁴⁷⁾ 1910년 10월에 마련한 社屋 역시 의연에 의한 것이었다. 1909년 12월에 레들랜드 Redland 지방에 재류하던 安爽中·李元吉 등이 「신한민보사 가옥건축 취지서」를 발기하여, 30弗의 기부금 出捐者 500인을 모집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 샌프란시스코의 페리街 Perry St. 232호를 3,500弗에 매입하고, 1910년 10월 1일에 建館式을 가질 수 있었다.⁴⁸⁾

45) 『共立新報』 1908년 4월 8일자 「특별사고」.

46) 『新韓民報』 1909년 9월 29일자부터 11월 17일자까지에 게재된 의연금의 합계가 그렇다.

47) 『共立新報』 1907년 11월 8일자 별보 「新報 확당할 趣旨書」. 同 11월 29일자 잡보 「하사불성」.

48) 『在美韓人史略』, pp. 492~496.

IV. 『共立新報』・『新韓民報』의 內容

『共立新報』는 共立協會의, 『新韓民報』는 國民會 북미지방총회의 기관지였기 때문에 단체의 사업이나 會務・財政 등의 보고사항과 홍보사항을 「協會要錄」・「會報」나 「國民會報」라는 고정란을 두어 보도하였다. 共立協會나 國民會의 사업은 그 기관지를 통하여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러면서도 기관지로서의 한계에 머무르지 않고, 이들 신문은 교포사회와 국내의 독자들을 계몽하고 여론을 주도하고 있었다.

『共立新報』의 지면배치와 게재 내용에 관해서는, 同報 1908년 1월 15일자 기사 「新年에 新報」에 개괄적인 언급이 있다.

……공립신보는 공립협회에서 동종상보호를 목적으로 발행하는 신문인데 그 신보에 고상한 언론으로 세련한 문설과 기사와 번역을 기지하여 인민의 사상 활발하며 자유정신을 고무하고 의보와 잡보를 기지하여 우리 동포로 하여금 세계형편을 알게 하여 문건을 넓히며 본국소문으로 본국형편을 알게 하며 그 예에 혹 격언 혹 소설 혹 문학 혹 격물 혹 광고 여러가지 인류에 관계되는 것들을 기지하여 우리 인민으로 하여금 통고궁달 사리케 하니 우리가 국권을 회복하며 자유를 차지하려면 폐일언하고 공립신보를 확장하여 될지라……

즉 논설・기사・번역・외보・잡보・본국・소문・광고까지 일반적인 신문기사의 항목을 나열하며, 이것이 국민을 계몽시켜 국권의 회복과 자유의 획득을 이루게 한다는 것이었다. 그것은 교포신문으로서 『共立新報』, 뒤이어 『新韓民報』가 나아갈 方向을 示唆하는 것이기도 하다.

국내의 신문들이 日本勢力에 의한 事前檢閲이나 押收 등의 통제하에 놓인 것과는 달리, 미주지역은 日本勢力으로부터의 제약이 없었으므로 『共立新報』・『新韓民報』는 국내신문들이 게재할 수 없던 내용의 기사들을 실을 수 있었다. 反日的인 내용과 자주독립의 쟁취에 대한 기사들이 그러한 것이었다. 日本側의 보고서에 『新韓民報』가 日本에 불리한 기사만을 게재

하여 排日的인 적개심을 고양시킨다고 한 것에서도 그 입장이 짐작된다.⁴⁹⁾

『共立新報』 1907년 9월 27일자의 「일본의 더한정칙」이라는 논설을 보면

……언필칭 동향평화라 린방우의라 기선몽고라 이것튼 외면장찬으로 린하공론을 통략하다가 말니에는 한인은 완미불령하야 자괴 나라를 더힐 자격이 업스니 부득이 최후수단을 힘하있다 하니……

라고 하여, 日本의 對韓政策이 表裏不同하고 침략적임을 비난하였다. 또 『新韓民報』도 1909년 9월 22일자와 10월 6일자의 논설 「日人の 對韓政策」에서 日本의 기만적인 침략정책을 懷柔・偵探・皇室利用・外飾・籠絡・示威・藉口 등 10가지로 비판한 바 있었다. 日本의 對韓政策을 비롯하여 日本人과 친일세력의 不法的 만행이라든가, 친일내각의 무능과 反民族的 政치를 비난한 기사는 이들 신문에서 쉽게 찾아진다. 특히 「內報」・「本國所聞」・「義兵消息」과 같은 고정란에는 국내에 있어 반일활동이나 무장의 병활동에 대한 기사를 주로 게재하였다.

스티븐스 暗殺事件이 일어나자 『共立新報』가 이를 크게 보도하고, 계속 관심을 가진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日本의 통치가 한국에 이익이라는 스티븐스의 발언에 교포사회 전체가 반발하였을 뿐 아니라, 張仁煥・田明雲은 共立協會와 무관하지 않았다.⁵⁰⁾ 『共立新報』는 1908년 3월 25일자의 1・2・3면에 걸쳐 3월 23일에 일어난 이 사건의 경과와 당위성, 兩義士에 대한 찬양으로 채웠다. 이후 계속 이 사건에 대한 논설과 기사를 게재하였으며, 재판과정도 상세히 보도하였던 것이다.⁵¹⁾ 『大韓每日申報』가 4

49) 『韓國獨立運動史』 1, pp. 1031~1032.

50) 張仁煥은 大同保國會의, 田明雲은 共立協會의 회원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共立新報』 1907년 9월 27일자 잡보 「회관증설」에는 새클라멘트 在留會員들이 共立館 건립에 의연한 명단과 금액이 기록되었는데, 田明雲이 2원 50전・張仁煥이 3원을 의연하고 있었다. 張仁煥은 大同保國會와 共立協會에 모두 가입하였으나, 大同保國會에서의 활동이 더 드러났던 것 같다.

51) 『共立新報』 1908년 4월 15・18일자에 預審이, 同 12월 8일자부터 1909년 1월 6일자까지 5회에 걸쳐 재판내용이 연재되었다.

월 16·17 일자에 「須知分砲殺詳報」 등으로 게재한 기사는 바로 『共立新報』의 轉載였다.⁵²⁾

스티븐스 暗殺事件과 관련하여 『共立新報』와 『新韓民報』는 한국과 비슷한 위치에 놓인 식민지나 弱小國에 대한 관심과 동정을 가지고 있었다. 영국 지배하의 印度에 대한 관심이 그러하였다.⁵³⁾ 1909 년 7 월에 인도에서의 영국의 惡政을 이유로 인도 유학생이 런던에서 영국의 무관을 암살하였는데, 『新韓民報』는 이를 여러 차례 기사화하고 동정적인 입장을 보인 바 있었다.⁵⁴⁾

『共立新報』와 『新韓民報』에는 국권회복을 위한 방략으로 敎育과 實業의 발전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實力養成論과 무장투쟁이 시급하다는 獨立戰爭論이 모두 제시되고 있었다. 이는 국내에서 애국계몽운동과 무장의병활동이 병존한 것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實力養成論과 獨立戰爭論은 대립적이라기 보다는 상호 병행·보완되어야 할 것으로 인식되지 않았나 싶다.

1907 년 8 월 16 일자 『共立新報』의 「國의 存亡은 國民활동 與否에 在否」과 같은 논설은

……세상만사가 시세와 완급이 있나니 敎育이니 양병이니 실업이니 경터니 종교니 하는 것은 틈평시덕에도 예비할 가이어나니 소리가 급박한 경우를 당하면 한갓 무예덕 행동 밧계는 방척이 업다 홀지라……

고 하여, 국가가 위급할 때는 무엇보다도 무장활동이 우선한다고 주장하였다. 敎育과 실업은 뒤로 돌려졌던 것이다. 또 그해 8월 9일자 장기찬의 기사 「독립전쟁 시작하세」는 가사체로 獨立血心으로 獨立戰爭에의 참여를 촉구하고 있었다. 이같은 주장은 매년 한 두 차례씩 논의되었다.⁵⁵⁾

52) 『大韓每日申報』에는 共同報의 別報라고 하였지만, 내용으로 보아 『共立新報』의 기사를 번역한 것이었다.

53) 『共立新報』 1908 년 1 월 22 일자 논설 「讀印도亡國史」.

54) 『新韓民報』 1909 년 7 월 7 일자 전보 「印度學生銃殺英官」, 同 7 월 14 일자 논설 「凌壓의 反響」, 同 7 월 28 일자 기사 「인도의사의 총소리」, 同 11 월 10 일자 「印度人의 論文」.

55) 『共立新報』 1907 년 9 월 27 일자 논설 「일본에 對한정칙」, 同 1908 년 2 월 5

그러나 『共立新報』 1907년 9월 20일자의 「지미동포의 주의할 바」와 같은 논설은 오히려 재정이며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한 實力養成論의 입장에서 있었다. 또 1909년 1월 6일자의 논설 「迎新年」은 교육확장·실업장려·풍속개량의 실행을 강조하였다. 『新韓民報』 1909년 8월 4일자의 기사 「大呼國民」에는 현재의 급무로 實業·教育·武藝를 들고 있었다.

결국 이것은 共立協會·國民會의 국권회복방략과 연결되는 것이었다. 1909년 이래 미주에는 군사교육기관도 여러곳에 설치되고, 獨立戰爭論의 대표자인 朴容萬이 新韓民報社의 주필로 초빙되고, 또 그가 국민회 중앙총회의 부회장으로 선출되기도 한다. 그리고 국민회는 遼東의 독립군기지 창설과도 무관하지 않았다.⁵⁶⁾ 그러나 미주에서의 국권회복운동은 實力養成論이 우세하지 않았나 생각된다. 국민회의 목적이 국권회복이었지만, 교육과 실업의 振發을 그 방법으로 내세웠음은 이미 살펴보았다. 오히려 미주에서는 이념적으로는 독립전쟁론을 수용하고 지원하면서도, 현실적으로는 실력양성론이 우세하지 않았을까. 미주가 국내와 연결된 遼東 지역과는 지정학적인 차이가 있고, 고등의 교육과 실업의 기회가 훨씬 넓었기 때문에 실력양성론이 보다 현실적인 독립운동의 방략으로 인식되지 않았을까 생각된다. 물론 그렇다고 독립전쟁론이 포기되었다는 것은 아니다. 韓日合併 이후인 1913년 10월 10일자 『新韓民報』의 논설 「국가의 향복은 민족의 정력을 저축함에 잇습」을 보면

……오늘 날 우리 민족의 조유를 좇으며 우리 국권을 회복하야 문명에 나아가는 것은 어찌 잇느냐 하면 곧 우리 민족이 각각 정력을 더축하며 무실력행(務實力行)함에 잇다 단언할지니……

라고 하여 務實力行을 강조하고, 그 예로 금전·체력·지식·도덕의 저축

일자 기사 「미주에 잇는 동포 명심하고 불망할 일」, 『新韓民報』 1909년 9월 8일자 논설 「在墨同胞之崇武主義」, 同 9월 22일자 기사 「吾人의 先急務는 在崇武」.

56) 朴永錫, 「韓人少年兵學校研究」, 『한국독립운동사연구』 1, 1987 및 尹炳寬, 전개논문 참조.

을 주장하였다.⁵⁷⁾

또 『共立新報』・『新韓民報』는 미주에서 발행되었지만 皇室을 인정하고 있었다. 물론 국가와 국왕은 구별하였으며, 韓日合併에 이르기까지 立憲君主制 하의 지방자치제를 주장하였다.⁵⁸⁾ 光武・隆熙의 연호를 사용한 것에서도 그 입장이 찾아진다. 그러나 韓日合併 이후에는 민주주의에 입각한 共和主義를 독립정부의 형태로 구상하고 있었다.⁵⁹⁾

교육과 실업이 강조되었음은 이미 언급하였다. 특히 共立協會는 유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였을 뿐 아니라,⁶⁰⁾ 1908년에는 클레몬트에 學生養成所를 共立協會의 학무부에서 건립하여 학생교육을 담당케 하였다.⁶¹⁾ 또 실업을 장려하는 논설들을 게재하면서 遠東開發을 목적으로 한 아세아 실업 주식회사(뒤에 株式泰東實業會社로 개칭)에의 참여도 권유한 바 있었다.⁶²⁾

기독교(개신교)에 관련된 논설이나 기사, 기사가 신문에 자주 보이고 있다. 교포의 70%가 개신교인이었고, 신문판여자의 대부분도 신자였으므로, 신문에 기독교와 관련된 기사가 많은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그러나 靜觀的인 경건주의의 기독교가 추구되지는 않았다. 1907년 8월 2일자 『共立新報』의 논설 「我大韓이 存耶아 亡耶아!」에

……우리나라에 교인들은 끌어치 아니하야 공연이 세상일이니 편국일이니 하

57) 이와 관련하여 共立協會와 國民會 북미지방총회가 實力養成論의 대표적인 인물인 安昌浩 계통의 인물이 주도했었을 가능성도 있다. 安昌浩는 共立協會의 초대 총회장이었고, 大韓人國民會 중앙총회의 초대 총회장에도 선출된다. 이에 비하여 獨立戰爭論의 대표격인 朴容萬은 1910년대에 주로 하와이에서 활동하였다.

58) 『共立新報』 1908년 3월 11일자 논설 「地方自治制論」, 『新韓民報』 1909년 3월 31일자 논설 「皇室非滅國之利器」, 단 後者는 新韓新報社의 관계자가 쓴 글이 아니라 李相高이 창씨조란 필명으로 쓴 것이었다. 『新韓民報』 1917년 5월 24일자 「헤거평화회에 갓던 리상설군의 당사」 참고.

59) 『新韓民報』 1914년 2월 26일자 「국민회력스」, 『재미한인오십년사』, pp. 107~110.

60) 『大韓每日申報』 1906년 10월 5일자 잡보 「共立協會試選」.

61) 『共立新報』 1908년 8월 26일자 「學生養成所設立趣旨書」.

62) 『共立新報』 1908년 10월 21일자 「아시아실업유식회사취지서」, 『新韓民報』 1909년 4월 28일자 「유식태동실업회사규칙」.

야 일신일가에 더한 세상일은 잘하고 일국에 더한 세상일은 못한다 하여 나라이
위급하며 동포가 도탄에 잇쓰되 한 방관자의 자격으로 일호 상관치 아니하니 엇
지 예수의 더인속죄훈 더의를 모범함이며 구세교에 중지라 하리요……

라고 한 것에서 짐작되듯이, 개인적이고 경건주의적인 기독교를 배경하고
있었다. 오히려 현실정치에 대한 관심을 촉구하였던 것이다. 즉 政教分離
의 원칙을 인정하면서도 정치법률과 같은 현실정치에의 관심과 연구를 주
장하였다.⁶³⁾ 스티븐스 暗殺事件에서 보인 신문과 교포들의 태도는 그 기
독교적인 입장을 헤아리게 한다. 또 친일적인 국내 기독교의 지도자에 대
한 비판 역시 같은 경우이다. 崔炳應목사 등이 義兵解散을 위한 宣諭委員
으로 활동하자. 이를 비난하는 기서가 2차례나 게재되었다. 더우기 그
하나는 샌프란시스코 한인교회의 전도사이고 共立新報社의 社員을 역임한
梁柱三이었다.⁶⁴⁾

기독교에 비하면 儒敎에 관한 언급은 거의 없다. 다만 방관자의 입장에
서 벗어나라고 국내의 儒林에게 촉구한 바 있다.⁶⁵⁾ 『共立新報』가 1907년
12월 20일자부터 1908년 11월 18일자까지 거의 1년동안 梁啓超의 『中國
魂』을 번역하여 연재한 것은 중국과 한국의 近似함 때문이었을 것이다. 따
라서 그 譯載은 유교사회의 개혁에 대한 관심이 드러난 것이 아닌가 한다.

마지막으로 지적한 것은 미주에 거주하는 교포와 유학생들에게 國文과
한국역사 등 조국에 대한 애정과 관심을 유도하였다는 점이다. 이들 신문
은 國文專用일 뿐 아니라, 國語文法에 관한 논설도 게재하고 있었다.⁶⁶⁾
교포들에게 만이 아니라 유학생들에게까지 國漢文과 한국 내정에 관한 공
부를 빼놓지 말라고 권고한 것이나,⁶⁷⁾ 「東國歷史」와 같은 연재물을 자주

63) 『共立新報』 1908년 6월 10일자 논설 「韓國 예수敎人의 謬見을 개원하라」.

64) 『共立新報』 1908년 2월 19일자 기서 「선유위원 최송량목사의게 통고함」(장
기찬), 同 2월 26일자 기서 「경고 아한국 예수교회 형제 자매」(양주삼).

65) 『共立新報』 1907년 11월 29일자 논설 「勸告我國內儒林」.

66) 『新韓民報』 1909년 4월 21일자 논설 「國文字母音略解」.

67) 『新韓民報』 1909년 8월 25일자 논설 「告我海外留學生」.

게재한 것도 고국과의 연대감과 애국심의 고취를 위해서였을 것이다. 또 국내에서 발행된 서적이나 잡지를 판매하였고, 出版法에 의하여 국내에서 판매금지와 압수된 서적들을 美洲에서 再刊하여 판매하기도 하였다.

V. 『共立新報』・『新韓民報』와 舊韓國

『共立新報』와 『新韓民報』는 미주 지역의 교포를 주대상으로 발행하였지만, 국내에도 상당량이 유입되었다. 앞서 살펴보았지만 1908년 초에는 3,000부 이상이 국내에 발송되어, 오히려 미주에서의 배부숫자 보다는 월등히 많았던 것이다. 따라서 그 독자층도 형성되어 있었으리라 짐작된다. 1908년 8월 현재 共立新報社의 국내발매소가 전국에 40개소 있었는데, 대개 關西와 嶺南 지방이었다. 관서에 17개소, 영남에 7개소였던 것으로 보아, 그 지방민들이 국내의 주독자층이 아니었을까.⁶⁸⁾

국내에서 共立新報社의 만성적인 재정난을 돕기 위하여 모금운동이 전개되었던 것도 그러한 독자층이 중심이 되었을 것이다. 1907년 12월 30일자로 발기된 이 모금운동이 平壤의 婦女子들에 의하여 이루어졌음은 특기할 만하다. 1908년 1월 22·23일자의 『帝國新聞』에 게재되었고, 2월 5일자 『共立新報』에 再錄된 「공립신보를 위하여 의연금모집 발기서」를 보면

정계자 우리는 녀인이라 특별호 지식은 업스느 다만 집안에 평안이 잇는 자마되야 수만리 희외에 손된 자의 고생함을 생각하고 기리 탄식타 마 눈물을 썬고 붓을 잡아 두어 줄을 기록하야 이천만 동포의게 고하노니…… 우리가 약소한 지경을 모집하야 천여명 동포의 로심로력하는 성의를 만분에 일이라도 감사코져 받기하오니 남녀와 로소를 물론하고 한국 국민된 사람은 각각 의무를 다하며 정성을 다하야……

이라고 의연금의 모집에 협조를 권유하였던 것이다. 그리고 이 움직임은 共立館 지원의 모금운동으로 확대되면서 서울의 婦女子들의 참여도 이루어

68) 『共立新報』 1908년 8월 5일자 「特別社告」, 註 39) 참조.

어지고 있었는데,⁶⁹⁾ 이는 국내의 부녀자들도 국문으로 발간된 『共立新報』를 읽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려준다.

이보다 앞서 1906년 샌프란시스코에 대지진이 있자 大韓每日申報社가 救恤金を 모집하여 共立協會에도 의연한 바 있고, 皇室의 下賜金도 있었다.⁷⁰⁾ 또 『共立新報』의 장학금 설치를 위해서도 大韓每日申報社가 국내의 의연을 주도하였다.⁷¹⁾ 1907년 2월에 귀족한 安昌浩도 4월에 신문광고로 共立協會와 『共立新報』에의 지원을 호소하기도 하였다.⁷²⁾

반대로 共立協會에서도 『共立新報』를 통하여 국내에 여러 차례 의연하였다. 國債報償義捐金の 모금이나, 帝國新聞社 維持捐助金を 비롯한 국내 신문에 대한 의연 등이 그 예가 될 것이다.⁷³⁾ 國民會로 개편된 후에도 咸南 文川郡의 饑饉救濟金を 모금하여 발송하였음을 『新韓民報』에서 찾을 수 있다.⁷⁴⁾ 이같은 共立協會나 國民會의 국내의연사업이 그 기관지를 통하여 이루어졌음은 자명한 일이다.

共立協會 특히 『共立新報』의 관여자들이 大韓每日申報社와 관계를 맺은 사실은 주목된다. 共立新報社의 會計 林崑正이 1907년 11월경에 귀국하여 大韓每日申報社의 會計로, 共立新報社의 인쇄인 李交倭 역시 1907년 말경에 귀국하여 大韓每日申報社의 사원으로 근무하였다.⁷⁵⁾ 安昌浩가 대

69) 『皇城新聞』1908년 1월 18일자 논설 「桑港共立館에 對하여 義捐募集의 贊成」.

70) 『大韓每日申報』1906년 8월 11일자 잡보 「海外同胞賀意」·「又一致謝」. 同 11월 21일자 광고 「桑港共立新報의 廣告」. 『皇城新聞』1906년 5월 8일자 논설 「桑港救恤金下賜」. 『在美韓人史略』, p. 478.

71) 『大韓每日申報』1906년 9월 25일자 잡보 「桑港共立協會贊成金募集趣旨書」.

72) 『大韓每日申報』1907년 4월 11일자 광고.

73) 『共立新報』1907년 4월 26일자 「國債報償義捐發起書」. 同 10월 11일자 논설 「대국신문의 폐속을 론함」. 『大韓每日申報』1907년 2월 24일자 잡보 「海外義捐」. 『皇城新聞』1907년 3월 30일자 잡보 「感謝在美地方會員諸氏」.

74) 『新韓民報』1909년 5월 5일자 별보 「고국 함경남도 문천군 기근에 덕하여 의연금 모집하는 취지서」. 同 5월 19일자 잡보 「文川郡饑饉救濟金」. 同 6월 23일자 잡보 「문천 구휼금 발송」. 특히 이 文川郡饑饉은 帝國新聞社에서 의연금을 모집하고 있었다. 『帝國新聞』1909년 2월 23일자 「특별광고」.

75) 『共立新報』1907년 10월 25일자 잡보 「동포환국」. 李鉉淙, 「舊韓末 政治·社會·學會·會社·言論團體調查資料」, 『亞細亞學報』2, 1966, p. 101. 『大韓

韓每日申報社의 총무 梁起鐸(1871~1938)과 함께 비밀결사인 新民會를 조직한 것은 잘 알려진 일이다. 日本側의 조사에 의하면 新民會는 미국 캘리포니아州 리버사이드에서 결성된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共立協會와의 관련을 시사하는 것이다.⁷⁶⁾ 李交俊의 경우는 불확실하지만 林蚩正은 新民會의 주요회원이었다. 그리고 1907년 9월에 共立新報社에 재직한 吳大泳도 귀국하여 菓子製造法을 하였는데, 그 역시 新民會의 주요회원으로서 뒤에 林蚩正과 105人事件에 연류되었다.⁷⁷⁾ 이 점은 共立新報社·新韓民報社와 大韓每日申報社 그리고 新民會와의 관련과, 미주와 국내의 國權恢復運動에서의 연계를 시사한다.

국내의 신문들은 『共立新報』나 『新韓民報』의 논설과 기사 등을 자주 인용하고 轉載하였다. 특히 멕시코 교포와 스티븐스 暗殺事件과 같은 기사를 그러하였다.⁷⁸⁾

국내에 『共立新報』를 비롯한 교포신문의 독자층이 형성되고 국내신문에 인용 또는 전제되어 영향을 미치자, 親日政府와 統監府에서는 이에 대한 규제를 시도하게 되었다. 당시 국내에서 한국인이 발행하던 신문들은 1904년 이래 事前檢閱을 받고 있었고, 1907년 7월 24일자로 발포된 光武新聞紙法의 규제를 받고 있었던 것이다. 다만 국내에서 外國人이 발행하는 신문은 이 규제에서 벗어나 있었다. 영국인 베델 Ernest Thomas Bethel(1872~1909)이 발행인으로 있던 大韓每日申報社가 그 경우였다. 또 외국에서 발행되는 교포신문도 이 규제 밖에 있었다. 이 신문들은 모두 日本

每日申報』 1910년 1월 13일자 잡보「李氏被捉」.

76) 『韓國獨立運動史』 1, p. 1023. 國友尙謙, 『不逞事件ニ依フテ觀タル朝鮮人』(高麗書林, 1986), p. 69. 愼鏞慶, 「新民會의 創建과 그 國權恢復運動」, 『韓國學報』 8·9, 1977; 『韓國民族獨立運動史研究』(乙酉文化社, 1985), pp. 19~23.

77) 『韓民族獨立運動史資料集』 4, p. 163.

78) 『皇城新聞』의 경우, 1909년 3월 21일자「勸告國內同胞」(『新韓民報』 1909년 2월 17일자 同名論說), 4월 2일자의 별보(2월 24일자 기사「멕시코 유가탄에 잇 동포의 주의할 일」), 6월 11·12일자「在墨同胞現況의 續聞」(5월 12일자 기사「遣墨兩委員來函」) 등이 멕시코 동포의 참상과 관련되어 『新韓民報』를 인용하거나 轉載한 例이다.

의 對韓政策을 비판하고 국권회복을 주장하던 극렬한 反日新聞으로 분류될 수 있었기 때문에 日本勢力은 이들의 규제를 가능케 하는 新聞紙法の 改正을 시도하였다.⁷⁹⁾

결국 1908년 4월 20일자로 光武新聞紙法이 개정되었다. 그중 제34조를 보면

外國에서 發行한 國文 或 國漢文 又は 漢文의 新聞紙와 又は 外國人이 內國에서 發行한 國文 或 國漢文의 新聞紙로 治安을 妨害하며 又は 風俗을 壞亂함으로 認하는 時는 内部大臣은 該新聞紙를 內國에서 發賣頒布함을 禁止하고 該新聞紙를 押收함을 得함⁸⁰⁾

이라 하였다. 즉 외국인이 발행하는 신문과 교포신문에 대한 규제가 가능하게 되었던 것이다. 이미 内部에서는 1908년 4월 10일자의 公文에서 『共立新報』가 反日的인 논조의 기사를 실는다는 이유로 배달정지의 조치를 통감부에 요청하였고, 5월 6일자의 公文에서는 외국에서 유입되는 신문을 通信管理局에서 假押收하였다가 内部의 결정에 따르게 해달라고 통감부에 요청하고 있었다.⁸¹⁾

『共立新報』는 1908년 5월 27일자에 논설 「愛國誠은 不可奪」을 실어

……이 세가지 도건을 털설한 것은 전혀 국내에 비열씨의 대한미일신보와 허의 한인단배의 기관보를 방한코져 흠이라 분하고 압호도다……제 아모리 방한호들 우리의 조회당은 능히 세앗는다 할지라도 우리 二千만인 흥동에 쓸는 피와 창자에 가득한 애국성은 가히 세앗을 도리 마 업슬이로다……

라고 하여, 그 분함을 참지 못하면서도 국권회복을 위하여 매진하겠다는 결의를 보였던 것이다.

79) 拙稿, 「光武新聞紙法에 관한 研究」, 『歷史學報』 92, 1981 참조.

80) 『舊韓國官報』 1908년 4월 29일자 「法律」.

81) 崔竣, 「僑胞新聞과 日本의 侵略政策」, pp. 279~280. 그런데 日本側에서는 국내에 유포되는 『共立新報』가 國內에서도 발행되는 것이 아닌가 의심하기도 하였던 것 같다. 『京城新報』 1908년 4월 26일자 참조. 桂勲模편, 『韓國言論年表』(寬勲출판 信永研究基金, 1979) p. 122에서 再引用.

1908년 4월말 이후 국내에 발송되었던 『共立新報』와 『新韓民報』는 대부분이 압수되었다. 『舊韓國官報』의 內部告示에 의하면 『共立新報』 제74호부터 韓日合併 직전에 발행된 『新韓民報』 제195호까지 총 122호 가운데 34호만이 압수되지 않고, 88호가 압수되었던 것이다. 日本側의 기록에 의하면 1908년에 『共立新報』가 19호, 총 10,264부를 압수당하였고, 1909년에는 『新韓民報』가 31호, 총 1,211부를 압수당하였다고 한다.⁸²⁾ 1908년 12월 30일자 『共立新報』의 논설 「送舊年」에서 그해의 중요한 사건의 하나로 新聞紙法の 개정에 따른 신문의 압수를 둔 것도 그같은 사정 때문이었다.

이렇게 신문이 압수되자 국내에서는 『共立新報』·『新韓民報』를 비롯한 교포신문들을 거의 받아볼 수 없게 되었다.⁸³⁾ 따라서 『皇城新聞』과 『大韓每日申報』까지도 특히 『共立新報』와 『新韓民報』를 가리켜, 反日的인 과격한 논조를 止揚하고 계몽적인 역할에 주의할 것은 권고한 바 있었다. 즉 압수되지 않는 것이 국내의 民智를 啓發할 수 있을 것이라고 충고하였던 것이다.⁸⁴⁾

그러나 『共立新報』·『新韓民報』는 계속 반일적인 논조로 국권회복을 내세우며, 국민의 애국심 고양에 진력하였다. 따라서 압수에 의하여 국내의 독자들과는 유리될 수밖에 없었다. 결국 1910년 8월에 韓日合併이 이루어지면서 교포신문 뿐 아니라 교포사회와 국내와의 연계는 거의 불가능한 위치에 놓이게 되었다. 특히 美洲 지역이 그러하였다. 실제 合併 당시까지 간행되고 있던 교포신문은 國民會의 기관지인 미국 본토의 『新韓民報』

82) 『統監府施政年報』 1908·1906년도 참조. 이에 의하면 1980년에 압수된 『共立新報』는 號當 약 540부, 1909년의 『新韓民報』는 약 40부였다. 압수가 계속되면서 국내로 발송되는 신문의 부수가 크게 격감하였음을 알 수 있다.

83) 國友尙謙의 『不遑事件ニ依ッテ觀タル朝鮮人』, pp. 133~134에 의하면, 『新韓民報』는 小包郵便으로 국내에 유입되기도 하고, 西間島를 거쳐 물래 유입되었다고 한다. 이를 받은 青年會 등은 각지의 단체로 신문을 보내고, 각 단체는 回覽 후에 다시 다른 단체로 보냈다는 것이다. 國友尙謙은 과장된 표현이겠지만, 1부의 신문을 능히 수집·수백·수천인이 보았다고 지적하였다.

84) 『皇城新聞』 1908년 5월 2일자 논설 「新聞界의 影響」, 『大韓每日申報』 1909년 9월 15일자 논설 「海外에 設立한 韓人報館에 敬告書」.

와 하와이의 『新韓國報』 뿐이었다.

Ⅵ. 맺는말

이상에서 舊韓末의 대표적인 교포신문으로 미주 지역에서 발간된 『共立新報』·『新韓民報』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전개된 논의를 정리함으로써 결론에 대신하고자 한다.

『共立新報』는 샌프란시스코에서 1905년 11월 22일자로 창간되었는데, 同種相保를 목적으로 조직된 共立協會의 기관지였다. 창간 초기에는 石版으로 간행되다가 1907년 4월 26일자부터 活版의 週刊紙로 발간되었다. 『新韓民報』는 1909년 2월 1일에 共立協會와 하와이 韓人合成協會가 國民會로 합동하면서 『共立新報』를 2월 10일자로 改題한 것이었다. 즉 國民會 북미지방총회의 기관지였다.

이 신문의 관여자들은 共立協會 또는 國民會의 주도적인 회원들로 노동 이민의 교포들과는 차이가 있었다. 전통적인 儒學도 수학하고 신학문에도 관심이 있었으며, 일부는 영어도 해독하였을 것이다. 대개 關西地方 중하류층 출신의 기독교인이 아니었나 한다. 그 운영은 신문대금 보다 교포들의 義捐에 크게 의존하고 있었다. 대체로 3,000 부를 발행하였는데, 미주나 하와이 보다 오히려 국내에 더 많이 유통되었다.

신문의 내용은 주로 反日的이고, 국권회복에 관심을 둔 것이었다. 국권회복의 방편에 있어서는 獨立戰爭論과 實力養成論이 함께 논의되면서도 현실적인 관점에서 實力養成論에 가깝지 않았나 생각된다. 교육과 실업을 중시한 것도 그러한 이유와 무관하지 않았을 것이다. 기독교와 관련된 논의가 적지 않았는데, 개인적이거나 경전주의적인 입장이 아닌, 현실정치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을 보여주고 있었다.

신문의 국내유통은 1908년 4월에 신문지법이 개정되면서 사실상 봉쇄

되었다. 反日的인 내용을 담은『共立新報』등을 압수하여, 독자층과 연결되지 못하게 한 것이었다. 더욱이 1910년 8월의 韓日合併으로 교포사회와 국내와의 연계가 끊어지자,『新韓民報』는 미주 독립운동의 모체가 되었던 것이다.

附記：本稿의 校正 중 亞細亞文化社刊 影印本에 缺落된『共立新報』와『新韓民報』가 韓國精神文化研究院 도서관에 마이크로 필름으로 소장되어 있음을 알았다.『共立新報』의 창간호부터『新韓民報』1912년 12월 9일자(제276호)까지가 포함되어 있어 本稿 작성에 도움이 될 것이나 크게 利用하지 못하였고, 다만 착오가 있는 것은 바로 잡았다.